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rital Parenting Stress with Preschool Children on Parenting Attitude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전 귀 연
박사과정 김 수 경

Dept.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Jeon, Gwee-Yeon

Doctoral Course : Kim, Sue-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rital parenting stress with preschool children on parenting attitudes, as measured by the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PAAT). From the mothers in Daegu, with 3- to 6-year-old preschool children, 138 subjects were select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enting attitudes according to the child's age, income, parent's occupation, and maternal educational level. Third, the child's domain of parenting stress affected the control and teaching/learning area of parenting attitudes. The parent's domain of parenting stress affected the creativity, frustration, and control area of parenting attitudes.

주제어(Key Words):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교사로서의 부모(parent as a teacher), 양육태도 (parenting attitudes)

Corresponding Author: Sue-Kyung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1370 Sankyuk 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2 Fax: 82-53-950-6209
E-mail: maysue64@hanmail.net

* 이 논문은 2002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발달의 한 관점으로 볼 때, 발달은 일반적으로 유전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서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고 상호조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과정에 있어서 유전적 기능은 아동의 능력에 대한 생리학적인 조절자로서, 반면에 환경은 아동 행동에 대한 사회적 조절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ameroff, 1993). 부모는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환경으로서 초기 아동발달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양육과 가족 내 요인, 가족 생태학적 체계와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고찰해 오고 있다(Bronfenbrenner, 1989).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아동발달의 결과는 대체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가족체계의 맥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의 실체는 부모의 이전 경험, 신념, 가치, 문화 및 아동발달과 양육실체에 관한 지식, 또한 심리적 상태, 인성 및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부모의 특성으로 이루어진다(Kang, 1985; Belsky, 1984).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특히 어린 자녀의 인지, 언어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Higley & Miller, 1996).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주고 부모의 개인 생활과 여가 활용 기회를 제약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부부 중심'이었던 부부 관계가 자녀의 요구를 우선시 하는 '자녀 중심'의 부부 관계로 변화되기도 하여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전춘애, 박성연, 1998; Belsky, 1984; Webster-Stratton, 1988). 자녀양육에 대한 뚜렷한 방향 제시나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상을 요구하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고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정옥분·정순화, 2000). 양육역할 수행 시 발생

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사소하지만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큰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

Abidin(1990)은 부모역할의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 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다.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에 대한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되어 유아의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Crnic과 Greenberg(1990)은 양육역할의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정신건강 및 가족 기능을 더 잘 예측한다고 나타내었다. 또한 Lazarus와 Folkman(1984)은 주요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는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배우자나 친척 등의 사회적 지지가 결여될 경우,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건강과 자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지각과 그에 따른 강압적인 부모 반응과 관련이 있었으며(Krech & Johnston, 1992),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아동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손상되었다고 나타났다(Webster-Stratton, 1988). 또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며(Abidin, 1990),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신숙재, 1997) 보고 되었다.

한편,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양육태도의 상이한 차원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양육태도의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요인들이 아동발달 및 적응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는 차원론적 접근과 실

재하는 그대로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보다 현실적인 유형론적인 접근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차원론의 보다 실질적인 응용과 변형 및 확장. 그리고 두 접근의 혼합 절충 형식 등 새로운 접근방식들이 등장하고 있다(안현지, 1999). 그러나 지금까지의 양육태도를 조사하는 선행연구의 상당한 부분이 온정과 통제 차원에 대해 집중해 오고 있다(김호영, 최문실, 2002; 신숙재, 1997; 이영숙, 2000; 이한우, 1998; 정덕희, 1998; Baumrind, 1967, 1991; 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따라서 양육적인 측면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양육태도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 아닌 선택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기존의 전통적 양육방식과는 다른 측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녀수의 감소로 인하여 자녀의 발달적 성과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양육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의 발달과 교육적 향상의 토대를 이루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Clark, 1997). 또한 유아기는 유아가 빨리 또한 많이 학습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시기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로서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여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양육태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양육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인간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환경적, 심리 사회적 분야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스트레스는 자원의 주의를 끌거나 생활의 생체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전략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상태 또는 요구이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는 또한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양육시기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다(Wacharasin, 2001).

부모기로의 전이는 부모와 다른 가족원의 삶에 변화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는데 수면패턴의 방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줄어 들, 관리의 책임, 더 많은 재정적 비용을 포함한다(Cmic, Greenberg, Ragozin, & Robinson, 1984). 영아를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친 연구에서 Cmic 등(1984)은 25%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에 스트레스가 많음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육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른 중요한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사소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 내에서 양육은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양육은 초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힘든 과제로 인식되어 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Cmic & Greenberg, 1990).

유아를 둔 가정에서 양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일상의 힘든 문제들은 부모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mic & Greenberg, 1990). 이러한 일상의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어머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보다 신경

질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Patterson, 1983), 힘든 문제가 적은 어머니에 비해 유아를 더 많이 통제하고, 적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it, Vaughn-Cole, & Wampold, 1994). 또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일상의 문제들은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부정적 기질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Acevedo, 1993).

Abidin(1990)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과 부모-유아의 기질적인 성향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까다로운 자녀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저체중 조산아의 어머니들은 정상영아의 어머니보다 아기가 1세, 3세 때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조산영아의 어머니는 자녀가 과활동적이고 산만하고 많은 요구를 한다고 지각하였다(Singer, Salvator, Guo, Collin, Lilien, & Baley, 1999).

또한 부모의 성격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등의 부모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Hall과 Farel(1988)은 5, 6세 유아 어머니 115명을 연구했는데 매일의 스트레스 자극이 많을 때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 더 많이 표면화되었고,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강하게 연관된다고 나타내었다. Dix의 적응성 양육 과정 모델은 부모의 정서를 강조하는데, Dix(1991)는 부모의 정서는 양육환경의 질을 제공하면서 양육을 조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내었다.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동안 정서적으로 자극 받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지각하고 감정을 조직화하게 되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Wacharasin, 2001). 부모가 느끼는 좋은 기분과 정서적 스트레스는 둘 다 부모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부정적 기분은 자녀 양육 과업에 있어 조화의 부족뿐 아니라 불충분한 모자 상호작용을 야기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적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들은 자

녀에 대해 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며 자녀의 요구에 덜 반응하여 그 결과로 자녀는 덜 반응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신호를 하며,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Wacharasin, 2001).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양육역할은 부모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며 가족생활의 조직화와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을 주며 지지적인 양육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적 성과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아동 특성, 부모 특성으로 나누어(Abidin, 1990), 양육 스트레스의 경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른 차이와 함께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려고 한다.

2.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지금까지의 양육태도를 조사하는 연구의 상당한 부분이 온정과 통제 차원에 대해 집중해 오고 있다(Baumrind, 1967, 1991; 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온정은 칭찬하는 행동, 신체적 애정, 신체적·심리적 유용성으로 정의되고, 통제는 규칙의 강화와 나이에 적합한 기대로 규정되며(Cohn et al., 1991), 아동의 발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Symond(1949)는 수용 대 거부와 지배 대 복종의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Becker(1964)는 제한 대 허용, 감정개입 대 감정분리, 온정 대 적의로 분류하였다. 또한 Baumrind(1967)는 권위적, 권위주의형, 허용형으로 분류하였으며, Schaefer(1959)는 애정 대 적대와 자율 대 통제의 두 적고 차원으로 구축된 양육태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Roe와 Siegelman(1963)은 애정 대 거부, 방임 대 강요, 관심 대 무관심으로

분류하였고 이원영(1983)은 자율적·애정적 대 통제적·거부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Baumrind의 연구는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다. Baumrind(1967)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의 최적 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최적 수준보다 부족할 경우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일관성 있게 보여주었다. 민주적인 양육은 아동의 자기-신뢰, 자기-조절, 긍정적인 정서와 관계되고 권위주의적인 양육은 아동의 철퇴, 불행, 분노 및 또래와의 불안정 행동과 관계된다고 나타났다.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성인에게 요구하며 교실활동에서의 참여를 지속할 수 없었다(Baumrind, 1967).

Sparks 등(1984)은 공유하기, 협동하기, 위로하기 같은 친사회적 행동 관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3세-6세 사이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태도를 측정한 결과, 자녀에 대해 좀더 통제적이었다고 발견하였다(Strom, 1995). 권위주의적인 양육은 높은 수준의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동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권위주의적 양육과 부적적으로 상관되었다(Janssens, 1994). 반대로 방임적인 양육은 아동의 높은 수준의 불복종, 요구, 문제 행동과 관계되어 있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고찰하면서 특히 훈육방식의 영향을 조사한 Tucker와 Fox(1995)는 SES와 아동의 나이를 통제했을 때, 부모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 점수와 정적으로 상관있다고 발견하였다. 부모가 지시를 많이 하는 아동은 문제의 토론(유도)보다는 공격과 위압(권력 주장)으로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사회적으로 덜 유능한 경향이 있었다(Dishion, 1988). 게다가, 거부된 소년은 다른 사회측정적 집단보다 좀더 성급하고 덜 공평하고 덜 일관적인 훈육실제를 경험하였다(Dishion, 1990).

한편, 지금까지의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행동특성을 다루기보다 일반적인 양육태도를 다루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겪는 초기 경험은 모든 발달영역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Belsky, Gilstrap, & Rovine, 1984; Gottfried, 1984)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따른 발달적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행동은 신적적인 돌봄과 관련된 양육적인 측면(nurturant caregiving), 부모와 자녀 간의 대면적인 관계 및 참여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측면(social caregiving),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자극을 주는 등의 가르치는 측면(didactic caregiving) 및 장난감 등의 물질적 환경을 마련해 주거나 제한하는 물질적 측면(material caregiving)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Bornstein, 2002). 선행 연구들이 주로 양육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나, 현대의 부모들은 지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가르치는'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Clark, 1997).

가정에서의 이러한 부모의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Strom(1995)은 창의성, 좌절/인내, 통제/허용, 놀이, 교수/학습 영역에서 자녀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측정하는 PAAT(Parent As A Teacher) 척도를 개발하였다.

Strom(1995)은 다음과 같이 PAAT 5가지 영역에 대해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상놀이는 아동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도구이므로,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가상놀이에 참여하여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고 선택에 대처하고, 복잡성과 모호함을 수용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여가시간을 잘 사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 있다(Toffler, 1990). 창의성은 가정과 학교 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자기발전을 위한 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기는 아동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이므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

서 아동들이 추측하고, 질문하고, 실험하고,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성의 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격려한다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trom, 1995).

아동의 정체성(identity)은 가정에서 학습되고 대부분 부모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목적이 아동의 발달적인 요구와 일치될 때, 아동은 정상적인 행동과 바람직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나 지나치게 아동의 발달정도를 넘어서는 기대를 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부모들은 좌절감과 실망, 그리고 패배감을 계속적으로 맛보게 된다(Strom, 1995).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아동들은 성인의 분노, 정서적 처벌, 또는 폭력의 결과를 낳게 된다. 부모가 좌절하는 형태가 무엇이든지, 이것은 대체로 아동이 부적합하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게 된다(Besharov, 1990).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아동의 특정한 행동이 왜 발생하며, 왜 이러한 양상의 다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좌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Strom, 1995).

또한 부모들은 종종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갈등을 하게 된다. 우리는 주위에서 선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아동들은 논리적인 일련의 가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때 그 결과로 무엇이 뒤따르는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부모가 지나친 통제를 하지 않고, 너무 조직적이지 않은 놀이 활동을 하는 아동은 잘못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나타났다(Robinson, 1993). 독재적이며 엄격한 훈육을 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성취를 억제시키며(Olivier, 1984), 아동이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Alwin, 1988), 아동의 창의성을 파괴한다(Gowan & Torrance, 1971)고 나타났다. 또한 지나치게 통제를 하는 부모의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이 낮으며 의존적이고 미성숙하다(Sparks et al., 1984)고 보고 되었다.

놀이는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견해는 곧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놀이에 대해 부모와 자녀들이 느끼는 이런 방식의 차이들은 대부분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가상놀이에 쉽게 몰두하는 아동들은 보다 집중할 수 있고, 과업을 지속하고, 불안에 대처하며, 좌절을 견뎌내고, 자기 통제를 더 많이 한다고 나타난다(Singer, 1973; Strom et al., 1981). 또한 가상놀이는 아동의 문제 해결력과 사고 능력을 진작시키며(Alvino, 1995), 갈등해결 기술, 어휘력 및 가치발달의 습득을 향상시킨다(Strom et al., 1981). 본 연구는 PAAT 척도를 사용하여 자녀의 창의성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격려,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좌절에 대한 수용, 자녀의 행동 통제에 대한 요구, 아동발달에서의 놀이의 영향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머니들의 지각 등 5가지 주요한 영역에 대한 양육태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공적인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한 학습은 부모와 자녀 간에 동료감과 가족의식을 심어주게 된다(Rash, 1998). Clark(1997)은 가정에서 행하는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인간 실현의 과정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알게 한다고 하였고,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강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과 환경적인 준비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평범한 자녀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다(Alvino, 1983).

이처럼 교사로서의 부모역할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자녀에게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교사가 부모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의사소통기술, 가치 및 개인적 성공을 위한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많은 다른 수업들을 전달하는 기회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Seligman, 1991).

교사로서의 부모의 노력이 지속되려면 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는 이러한 부모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가정에서 자녀에게 지지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부모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이후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발달적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AAT 척도를 사용하여 교사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와 함께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어머니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배경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2. 측정도구

1) 양육 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번역하여 사용한 이한우(1998)의 척도 중 아동특성 영역 12문항과 부모특성 영역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인 아동특성영역의 문항 내용은 활동성, 부모강화, 기분/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 등으로 활동성은 예민하고 산만한 행동과 같은 과다행동을 말하며, 부모강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가를 나타낸다. 기분/감정은 유아의 감정적인 성향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나타내며, 수용성은 유아가 부모의 기대를 얼마만큼 잘 수용하고 표현하는가를 나타내며, 적응성은 유아가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해 나가는가를 나타낸다. 이 중 적응성, 요구성, 기분/감정 및 활동성은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한우, 1998).

부모 자신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	63(45.7)	부의 교육	고졸이하	35(25.5)
	여	75(54.3)		대졸이상	102(74.5)
아동 연령	3-4세	72(51.8)	모의 교육	고졸이하	56(40.6)
	5-6세	67(48.2)		대졸이상	82(59.4)
소득	상(400만이상)	22(16.1)	부의직업	무직 및 비숙련직	2(1.5)
	중(150-399만)	97(70.8)		숙련직	9(6.6)
	하(149만이하)	18(13.1)		판매직	31(22.6)
부의 연령	35세이하	101(73.7)		사무직	54(39.4)
	36세이상	36(26.3)	전문직 및 관리직	41(29.9)	
모의 연령	35세이하	66(48.5)	모의직업	주부	89(65.0)
	36세이상	70(51.5)		판매직	12(8.8)
				사무직	22(16.1)
				전문직 및 관리직	14(10.2)

영역의 문항 내용은 유능성, 애착, 침체성, 억압성,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 등이다. 유능성은 부모 역할 수행 시 자녀의 요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가를 나타내며, 애착은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해 얼마나 애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침체성은 우울 같은 침체적인 정서 상태로 인해 양육 능력이 손상된 정도와 이로 인한 죄책감을 나타내며, 억압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이 자신의 개인 시간의 활용이나 다른 일을 할 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배우자 관계는 자녀 양육 시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지지 정도와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갈등을 나타내고, 사회적 고립은 부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와 부모 역할 수행 시 주변의 지지 정도를 나타낸다. 건강은 부모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신체적 건강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영역별 Cronbach α 계수는 아동특성 영역 .72, 부모특성 영역 .78이다.

2)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척도

교사로서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trom(1995)이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1995년에 개정한 PAAT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를 연구자가 번역하고 전공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검토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문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AT는 아동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다음의 5가지 영역에서 양육태도를 조사하는 50개 문항으로 구성 된다.

- ① 창의성 영역(10문항) : 창의성을 조장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바람과 자녀의 창의적 기능성에 대한 부모의 수용
- ② 좌절/인내 영역(10문항) : 자녀양육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좌절에 대한 인내심과 자녀의 요구에 대한 수용

- ③ 통제/허용 영역(10문항) :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가능한 적게 통제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정도와 자녀의 의사 결정에 대한 허용
- ④ 놀이 영역(10문항) : 아동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에 관한 부모의 이해
- ⑤ 교수/학습 영역(10문항) : 자녀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

PAAT는 4점 Likert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이 27개, 긍정적 문항이 23개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특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각 영역별 Cronbach α 계수는 창의성 영역 .65, 좌절/인내 영역 .78, 통제/허용 영역 .74, 놀이 영역 .63, 교수/학습 영역 .71이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3년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대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 전화로 문의하여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각각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머니용 설문지 총 200부를 배부하여 그 중에서 139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1부를 제외한 13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PC+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알아보는 기술적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집단간 비교를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특성 영역의 평균점수는 2.22(SD=.45), 부모특성 영역은 2.27(SD=.51)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평균점수는 창의성 영역 2.86(SD=.27), 좌절/인내 영역 2.78(SD=.31), 통제/허용 영역 2.82(SD=.30), 놀이 영역 2.90(SD=.24), 교수/학습 영역 2.75(SD=.26)로 나타났다. PAAT의 개발자 Strom(1995)은 각 영역별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이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소득, 부모의 직업, 모의 연령,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 모의 교육수준 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남아의 부모가 여아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나타낸다는 연구(고영미, 1995; 신숙재, 1997;

엄경미, 1999)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엄선희, 1999; 조경순, 1996),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고선주 옥선화, 1993; 김기현, 1998) 등과 맥락을 같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연구마다 그 결과의 양상이 서로 달라 일치되지 않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먼저 소득이 창의성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절/인내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으로는 아동성별, 부의 직업 및 모의 직업이었다. 즉, 아동이 남아인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숙련적인 경우,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직인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허용 영역에서는 소득과 아동연령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3-4세인 어머니가 자녀가 5-6세인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통제를 적게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통계

<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반응점수범위	가능한 점수범위
양육 스트레스 (24문항)	아동특성 (12문항)	2.22	.45	1.33-3.83	1-5점
	부모특성 (12문항)	2.27	.51	1.25-3.50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50문항)	창 의 성 (10문항)	2.86	.27	2.10-3.50	1-4점
	좌절/인내 (10문항)	2.78	.31	2.10-3.60	
	통제/허용 (10문항)	2.82	.30	2.10-3.50	
	놀 이 (10문항)	2.90	.24	2.30-3.70	
	교수/학습 (10문항)	2.75	.26	2.20-3.80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변인	집단	빈도	창의성				좌절/인내				통제/허용				놀이				교수/학습				
			M	SD	F	Sch effé	M	SD	F	Sch effé	M	SD	F	Sch effé	M	SD	F	Sch effé	M	SD	F	Sch effé	
아동 성별	남	63	2.87	.29	.04	-	2.84	.32	3.98*	-	2.86	.32	-	2.90	.26	.01	-	2.80	.28	3.89*	-		
	여	75	2.86	.25			2.74	.30			2.78	.28		2.42	2.90			.22	2.71			.24	
아동 연령	3-4세	72	2.84	.23	2.18	-	2.75	.30	.06	-	2.84	.24	3.78*	-	2.90	.21	.00	-	2.73	.23	.59	-	
	5-6세	67	2.88	.30			2.81	.33			2.74	.35			2.90	.26			2.78	.28			
소득	상	22	3.00	.27	3.25*	-	2.93	.31	2.91	-	2.96	.31	2.99*	-	2.92	.26	.10	-	2.85	.24	2.42	-	
	중	97	2.84	.26			2.75	.30			2.80	.29			2.90	.23			2.75	.26			
	하	18	2.81	.27			2.77	.31			2.76	.29			2.90	.28			2.66	.28			
모의 교육	고졸	56	2.82	.29	1.73	-	2.77	.31	.14	-	2.79	.32	1.12	-	2.88	.22	.88	-	2.68	.20	6.58*	-	
	대졸	82	2.89	.26			2.79	.32			2.84	.28			2.92	.25			2.80	.29			
모의 연령	35세이하	101	2.87	.26	.20	-	2.78	.31	.01	-	2.84	.28	1.30	-	2.91	.23	1.54	-	2.74	.24	1.46	-	
	36세이상	36	2.84	.31			2.78	.32			2.77	.34			2.86	.26			2.80	.30			
*1 부의 직업 *2	2	9	2.95	.25	1.25	-	3.02	.31	3.19*	-	2.87	.32	2.56	-	2.98	.28	1.01	-	2.75	.33	2.23	-	
	3	31	2.92	.30			2.85	.34			2.94	.39			2.90	.29			2.80	.31			
	4	54	2.86	.24			2.71	.29			2.79	.25			2.86	.20			2.68	.22			
	5	41	2.81	.29			2.76	.30			2.75	.25			2.93	.24			2.80	.25			
모의 직업	1	89	2.85	.26	.45	-	2.74	.28	4.59**	-	a	2.80	.27	1.33	-	2.87	.21	2.35	-	2.70	.21	4.08**	-
	3	12	2.91	.30			3.09	.33			b	2.98	.40			3.05	.26			2.95	.39		
	4	22	2.84	.30			2.77	.27			ac	2.81	.32			2.96	.29			2.80	.31		
	5	14	2.92	.31			2.83	.45			ab	2.86	.36			2.87	.26			2.82	.29		

*p<.05 **p<.01

1 직업 1: 주부 및 무직 2: 숙련직 3: 판매직 4: 사무직 5: 전문직 및 관리직
2. 부의 직업 중 1(무직)은 사례수(N=2)가 적어 분석에서 생략함

학적 변인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모의 교육, 아동 성별, 모의 직업 등으로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 남아인 경우,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직인 경우 자녀의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3-4세 자녀의 어머니가 5-6세 어머니보다 통제를 적게 한다고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PAAT 척도를 사용하여 자녀 연령이 3세인 경우 5세인 경우보다 창의성, 좌절/인내, 교수/학습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는 진선미(1999)의 연구와 Strom(1995)의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통제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수경(2003)의 연구에서 6세 이상의 장애유

아 어머니가 통제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동성별에 있어서는 남아인 경우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높으며,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선미(1999)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은 창의성 영역과 통제/허용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부모의 직업은 좌절/인내 영역과 교수/학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모의 교육은 교수/학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교육 수준,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사로서의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나타난 진선미(1999)의 연구, Rash(1998)의 연구 및 Strom, Park, & Daniels(1987)

의 연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Strom과 Johnson(1989)의 연구와 Strom 등(1981)의 연구와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진선미(1999), Rash(1998), Strom과 Johnson(1989), Strom 등(1981)의 연구는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trom 등(1987)은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지도 모른다.

4.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먼저 창의성 영역에서 부모특성의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의 창의적인 사고를 조장하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영역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0%이다. 좌절/인내 영역에서 부모특성의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좌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절/인내 영역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9%이었다. 통제/허용 영역에서는 아동특성과 부모특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 어머니가 아동과 자신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에 대해 통제를 적게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허용 영역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6%이다.

한편, 놀이 영역에서는 아동과 부모특성은 모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아동특성의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 어머니가 아동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의 교수/학습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영역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2%이었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양육 스트레스 중 아동특성 영역은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하위 영역 중 통제/허용 영역, 교수/학습 영역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특성 영역은 활동성, 부모강화, 기분/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 등으로 이 중 적응성, 요구성, 기분/감정 및 활동성은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하였다(이한우, 1998). 아동의 기질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Bates, 1980), 규칙적이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순한 아동'(Thomas & Chess, 1977)은 대부분 양육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까다로운 아동'은 일상에서의 변화에 쉽게 순응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섭식과 수면 일과를 느리게 발달시키며 부모의 인내와 체력, 그리고 많은 자원을 요구하므로 양육자로부터 질적인 보호를 덜 받게 된다.

자녀의 기질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보면, 까다로운 자녀를 둔 어머니일수록

<표 4>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창 의 성		좌절/인내		통제/허용		놀 이		교수/학습	
		B	β	B	β	B	β	B	β	B	β
양육 스트레스	아동 특성	-9.8E	-.16	-5.1E	-.07	-.14	-.21*	-3.2E	-.51	-.12	-.21*
	부모 특성	-.10	-.19*	-.15	-.222*	-.13	-.22*	-7.2E	-1.30	-8.7E	-.16
F		8.01**		6.84**		12.91***		2.66		9.63***	
R ²		.10		.09		.16		.03		.12	
Durbin-Waston		2.23		1.99		1.72		2.11		1.93	

*p<.05 **p<.01 ***p<.001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들(김기현, 2000; 김혜성, 2001; 신숙희, 2003)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까다로운 기질은 부정적 모-자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키며(Thomas & Chess, 1977), 부모의 거절, 인내심 부족, 비승인 행동과 같은 부정적 태도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을 강화시키게 된다(Cameron, 1977). 즉 유아의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조화로운 적합성(Thomas & Chess, 1977)의 개념에 의거하여 자녀의 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기대로 자녀를 대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녀의 보다 나은 발달과 적응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자녀에게 보다 통제를 많이 하며 의사결정의 기회를 적게 주며 자녀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수준이 낮아진다. 따라서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기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 자신의 문제로 발생하는 부모특성 영역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창의성, 좌절/인내, 통제/허용 영역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부모효능감이 어머니의 강압적, 합리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숙재(199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Pianta와 Egeland(1990)에 의하면 어머니의 과거 경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의 부족 및 역기능적 대인관계를 초래하는 심리적 특성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lsky(1984) 모델에서 대부분의 인간 행동들처럼 양육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Vondra와 Belsky(1993)는 심리적 성숙은 유능한 양육과 관계되고 높은 수준의 분노, 우울 및 정신적 건강의 손상은 서투른 양육을 예측하나 다른 사람과 지지

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타내었다. 즉, 양육역할의 수행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며, 배우자나 사회적 관계에 의한 긍정적인 지지에 의해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 자신의 문제와 배우자와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사회적 관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자녀의 창의적인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용능력이 저하되고 자녀 양육에 있어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자녀의 요구에 대한 인내심이 결여되며, 또한 자녀에게 통제를 많이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적게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 소득, 부모의 직업, 모의 연령, 모의 교육수준 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보다는 어머니의 특성이나 배우자의 지지 등 상황적 맥락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아동연령이 통제/허용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3-4세 자녀의 어머니가 5-6세 어머니보다 통제를 적게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별은 좌절/인내 영역과 교수/학습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아인 경우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높으며,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미치는 다른 변인의 간접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출생순위, 아동기질,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득은 창의성 영역과 통제/허용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높으며, 자녀에게 통제를 적게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직업은 좌절/인내 영역과 교수/학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아버지의 직업이 숙련직인 경우와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직인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직인 경우 자녀의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교육은 교수/학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 자녀의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유형별로 유의한 집단차이가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후속연구에서는 직업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부모의 직업별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 중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 한 아동특성 영역은 어머니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하위 영역 중 통제/허용 영역, 교수/학습 영역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자녀에게 보다 통제를 많이 하며 의사결정의 기회를 적게 주며 자녀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수준이 낮아진다. 따라서 자녀의 기

질적 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기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아동의 기질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의 이해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 자신의 문제로 발생하는 부모특성 영역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의 창의성, 좌절/인내, 통제/허용 영역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 자신의 문제와 배우자와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사회적 관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자녀의 창의적인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용능력이 저하되고 자녀 양육에 있어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자녀의 요구에 대한 인내심이 결여되며, 또한 자녀에게 통제를 많이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적게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구지역의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 측정 시 Abidin(1990)의 원래 척도 중 일부(24문항)만을 사용한 이한우(1998)의 척도 중에서 주요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문항을 제외하고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주요생활사건에 따른 스트레스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요생활사건에 따른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각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태도가 아동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일반유아보다 크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 양육역할에서의 아버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 차이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선주, 옥선화(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1: 첫 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2), 55-67.
-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6-62.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장애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투자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영, 최문실(2002).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 연구. *진리논단*, 7.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희(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이영숙(2000). 유아부모의 학력에 따른 책임의식, 양육태도,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과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한우(1998).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박성연(1998). 어머니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11.
- 정덕희(1998). 유아가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 3(1), 145-171.
- 정옥분, 정순화(2000). 부모교육-부모역할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00.
- 진선미(1999). 영재 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Acevedo, M. C. (1993). Determinants of the variations in parental affect socializatio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 Alvino, J. (1983). Hot to nurture children's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PTA-Today*, 9(2), 13-16.
- Alvino, J. (1995). Considerations and Strategies for Parenting the Gifted Child. *Monograph of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and the Gifted and Talented*, RM 95218.
- Alwin, D. F. (1988). From obedience to autonomy: Changes in traits desired in children, 1924-1978. *Public Opinion Quarterly*, 52, 32-52.
- Bates, J. E. (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 Palmer Quarterly*, 26, 299-319.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1- to 3- to 9 -months.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Besharov, D. (1990). *Recognizing child abuse: A guide for the concerned*. New York: MacMillan.
- Bornstein, M. H. (2002). *Handbook of parenting*. In M. H. Bornstein(2nd Ed.), *Parenting infants*(Vol 1, pp. 3-43).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ies.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7-249.
- Cameron, J. R. (1977). Parental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568-576.
- Clark, B. (1997). *Growing up gifted*(5th ed.). Upper Saddle River, NJ: Simom & Schuster.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 Robinson, N. M. (1984). Maternal stress and social support: Effects o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from birth to eighteen month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2), 224-235.
- Dishion, T. J. (1988). The peer context of troublesome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In P. E. Leone(Ed.), *Understanding troubled and troubling youth: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pp. 128-153). Newbury, CA: Sage.
- Dishi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Gottfried, A. W. (1984). *Home environment and early cognitive development*. Orlando, FL: Academic.
- Gowen, J. C. & Torrence, E. P. (1971). *Educating the Ablest*. Itaska, IL: Peacock Press.
- Hall, L. A. & Farel, A. M. (1988). Maternal stresses

- and depressive symptoms: correlates of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Nursing Research*, 37(3), 156-61.
- Higley, A. M. & Miller, M. A. (1996).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Nursing resources.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25(9), 707-713.
- Janssens, J. M. (1994). Authoritarian child rearing, parental locus of control, and the child's behavioral styl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 485-501.
- Kang, R. R. (1985). *A model of parent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Krech, K. H. & Johnston, D. (1992). The relationship of depressed mood and life stress to matern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15-12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Oliver, A. (1984). *Blockages to crea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Education for the Gifted "Ingenium 2000", Stellenbosch, Republic of South Africa.
- Patterson, G. R. (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 235-264). New York: McGraw-Hill.
- Petit, M. A., Vaughn-Cole, B., & Wampold, B. E.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 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51-158.
- Pianta, R. C. & Egeland, B. (1990). Life stress and parenting outcomes in a disadvantaged sample: Results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projec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29-336.
- Rash, P. K. (1998). An analysis of self-reported behaviors and attitude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Abstract of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 Robinson, N. M. (1993). Parenting the very young, gifted child. *Monograph of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and the Gifted and Talented*, 9308.
- Roe, A. A. & Siegelman, M. A. (1963). The origin of interests, *American Personal and Guidance Association Inquiry Studies*, 1, 1-98.
- Sameroff, A. J. (1993). *Models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 risk*. In C. H. Zeanah(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 Seligman, M.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Doubleday and Co.
- Singer, L. T., Salvator, A., Guo, S., Collin, M., Lilien, L., & Baley, J. (1999). Maternal psychological distress and parenting stress after the birth of a very low-birth-weight infant. *JAMA*, 282(9), 799-805.
- Singer, J. (1973). *The child's world of make-believ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parks, A. D., Thornburg, K. R., Ispa, J. M., & Gray, M. M. (1984). Prosocial behaviors of young children related to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5, 291-298.
- Strom, R. & Johnson, Q. (1989). Hispanic and Anglo families of gifted children.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6(4), 164-172.
- Strom, R. D. (1995).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 Strom, R., Park, S., & Daniels, S. (1987). Childrearing dilemmas of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Education*, 24(1), 91-102.
- Strom, R., Slaughter, H., Rees, R., & Wurster, S. (1981). Childrearing expectations of families with atypica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2), 285-296.
- Symond,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p. 84-8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Toffler, A. (1990). *Powershift*. New York: Bantam Books.
- Tucker, M. A. & Fox, R. A. (1995). Assessment of families with mildly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3, 200-202.
- Vondra, J. L. & Belsky,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1-3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acharasin, C. (2001). Predicting child cognitive development in low-income families.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Nursing.
- Webster-Stratton, C. (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s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09-915.

(2004년 7월 14일 접수, 2004년 10월 12일 채택)